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학우들 사랑의 김밥 장사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학우 어머니 수술비 마련 나서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학우 어머니의 심장병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김밥 장사에 나섰다.

같은 과 1학년 손모(19)양의 어머니가 치료를 받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서다. 손양의 어머니는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돼 수술이 불가피하다. 비장 등 다른 장기의 기능까지 악화돼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손양은 2개월 가까이 어머니가 입원 중인 전남대병원에서 등교하고 있다. 가정형편도 그리 넉넉지 못해 수술비 걱정이 태산이다.

먼저 1학년 학생 30명이 의기투합했다. 2~4학년 선배들도 기꺼이 동참했다. 200만원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다. 모금 기간은 12월1일부터 8일로 정했다. 각각 1만원씩 갹출해 사업밑천을 만들었다.

김밥 한 줄이라도 더 팔기 위해 역할을 나눴다. 총무·홍보·김밥 팀이다. 총무팀은 김밥재료 구매에서부터 수익관리까지 돈을 책임지고 있다.

홍보팀은 판촉에 주력하고 있다. 도서관 앞에 가판대를 만들고 홍보전단도 제작해 대학 곳곳에 배포했다. 대학 내 입소문이 돌면서 전화주문이 쇄도해 배달하는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란다.

김밥 팀은 오전 7시 사회대 '신사회 편집실'에서 모여 김밥을 만든다. 낯선 일이라 간혹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학우를 돕는다는 생각에 정성껏 만다.

하루 판매량은 300줄가량. 한 줄당 1천원씩이니까 30만원 정도다. 재료비를 제하면 20만원 벌이다. 8일 동안 200만원을 모으려는 당초 계획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학생들은 김밥 판매 외에도 헌혈증 모집 운동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0장을 모았다. 헌혈증 모집은 손양의 어머니가 건강하게 퇴원할 때까지 계속된다.

학회장 손범석(24·2년)군은 "어려움에 처한 학우를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모든 학과생이 동참하고 있다"며 "손양의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5일 오후 사회대 1층 '신사회 편집실'에서 같은 학과 학생 어머니의 심장병 수술비 마련을 위한 '사랑의 김밥'을 만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 900상자 체신청에 '얼굴없는 기탁'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달라며 김 900상자(63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 남자는 최근 전남체신청에 김 400상자를 보냈다. 그는 "체신청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며 "별 일도 아닌데 이름이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 남자는 체신청 외에도 7개 우체국(북광주 40·해남 60·담양 20·장성 20·화순 140·광주우편집중국 100·순천우편집중국 120상자)에 모두 김 500상자를 맡겼다.

체신청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는 기부자 뜻에 따라 세실리아 요양원과 나주 계산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120여 세대에 전달했다.

고광섭 전남체신청장은 "매년 이맘때면 각 복지시설에 불우이웃을 돕는 '얼굴 없는 기부자'가 등장했다"면서 "올해도 이들로 인해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 反FTA 금남로집회

경찰, 원천봉쇄키로

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오후 금남로 2가에서 예정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의 촛불집회를 금지하는 등 반 FTA 집회를 원천봉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광주·전남지역에서 1천여 명의 농민·노동자·학생 등이 이날 서울광장과 종묘공원에서 열릴 한미 FTA 저지 범국민 3차 궐기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이들의 상경 집회를 시·군에서 원천 차단키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리는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악법 날치기 통과 규탄집회'의 경우 허가를 받은 만큼, 비당원의 상경은 차단하되 당원들의 상경은 제지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의 지난달 22일 광주시청 앞 폭력시위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커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육부 "통합 조건 한의학대학원 약속한 적 없다"

전남대·여수대 총동창회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남대와 옛 여수대의 통합 전제 조건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전남대 총동창회와 여수대 총동창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전남대 총동창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4일 민원회신을 통해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는 양 대학 간의 합의일 뿐 교육부는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혀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투명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부산대를 최종 선정했다"며 선정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대 총동창회 등은 앞서 전남대가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실패하자 대통령·국무총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통합 당시의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대총동창회 등은 5일 청와대·국무총리실·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서를 발송하는 한편 법적 소송과 집단 행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 남구청 초청 중국인 투자단 공항에서 '가짜' 들통 강제출국

광주 남구청이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해 초청한 중국인 투자단이 '가짜'로 드러나 광주공항에서 강제출국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청은 차이나타운 조성에 따른 '중국 기업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 지난 8월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H사에 초청장을 발송했다.

이에따라 중국인 투자단 11명이 지난달 20일 상하이발 '동방항공 MU5058편'을 타고 광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투자단 일부는 기업인이 아닌 농업인이었고, 비자 발급 서류 역시 조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입국이 거부돼, 이틀만인 지난달 22일 강제 출국 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방문 전 H사에서 보내온 명단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차이나타운은 남구 주월동 무진상가 인근에 중국 자본가가 투자하고 남구청이 지원을 하는 '선 투자, 후 지원' 형식으로 세워질 예정이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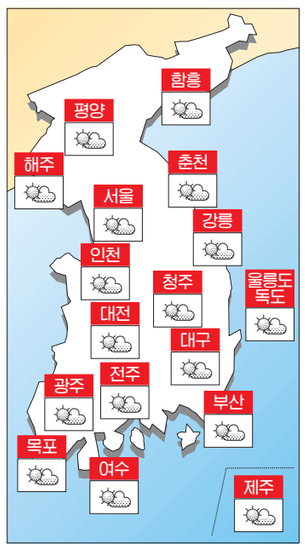
언 손을 녹이고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에 차차 흐려지겠다.

12월 6일 (음 10월 16일) ◇전국날씨

날씨

광 주	차차흐려짐	0~11℃
목 포	차차흐려짐	1~11℃
여 수	차차흐려짐	4~10℃
완 도	차차흐려짐	2~12℃
구 례	차차흐려짐	-2~12℃
해 남	차차흐려짐	-1~12℃
장 흥	차차흐려짐	-2~11℃
고 흥	차차흐려짐	-1~11℃
순 천	차차흐려짐	-2~12℃
영 광	차차흐려짐	0~11℃
진 도	차차흐려짐	1~13℃
전 주	차차흐려짐	-1~10℃
남 원	차차흐려짐	-4~10℃
정 읍	차차흐려짐	-1~10℃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2:18 15:15 썰물 07:41 20:30
여 수 밀물 09:57 21:54 썰물 03:17 16:02

▲해뜸 07:26 ▲해짐 17:20 ▲달뜸 18:12 ▲달짐 08:4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날 씨						
최저/최고	6/10	6/10	4/11	2/11	1/12	2/11

'청년 산타' 1004명 찾습니다

3개단체 15일까지 모집

'산타 청년'들이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섰다.

'광주청년나눔센터'와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전남 봉사연합회' 등 3개 단체가 15일(전남은 21일)까지 1천4명의 청년 산타를 모집한다.

광주를 비롯해 여수·순천·해남·화순 등 곳곳에서 활동하게 될 청년 산타들의 임무는 겨울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것이다. 이들은 24일 밤 8~10명이 한 팀이 돼 산타 복장을 하고 저소득층 자녀·소년소녀 가장·장애 어린이 등 소외 이웃을 찾아가 크리스마스 선물과 희망 엽서를 전달하게 된다. 처음 청년 산타가 활동한 지난해에는 500여 명이 200가구를 방문했었다.

올해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정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가구수를 늘려 사회 곳곳에 사랑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방문할 가구는 9일까지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나 자활 후견기관, 저소득층 공부방을 통해 추천받아 선정한다.

행사의 취지에 공감한 후원도 잇따르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가 문구·인형·목도리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아이안과와 금강산 여행사가 후원금을 전했다.

오는 16일 오후 5시에는 조선대학교 서석홀 4층에서 예비 산타들에게 행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산타학교'가 열린다.

또 24일 당일에는 선물을 전달할 집을 사전 답사한 뒤 오후 5시 구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 앞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동부교육장 공모 7명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개청 이래 처음 실시한 동부교육장 공개모집에 모두 7명이 지원했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주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4일 하루 접수를 받은 결과 초등 출신 2명, 중등 출신 5명 등 모두 7명이 지원서를 냈다.

시교육청은 6일 '교육장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발표·면접심사를 벌인 뒤 3배수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임용제청(추천)할 계획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